

# 意志의 齒科人 (完) 金 殷 鍾 先生님



으로 10여년을 넘게 公職에 계시면서 서울시 치과 의사회 발전에 獻身의으로 奉仕해 오신 意志의 齒科人 金殷鍾 先生님은 올해 73세로 1909年生.

국제도시「하루빈」에서 30대의 情熱과 낭만을 회상하시는 선생님, 노안에 주름살이 깊은 것은만주대륙에 흠바람 타이었을까?

50여년을 齒科界에 몸바쳐오신 意志의 齒科人 金殷鍾 先生님은 情熱과 젊음의 化身인듯 후배를 제치고 齒科界의 내일을 걱정하신다.

서울시 齒科醫師會 代議員總會 議長職에서 고문으로 10여년을 넘게 올해 73세로 1909年生.

## = 주요 약력 =

1930년 경성치전 제 1 회 졸업

1932년 이후 만주 하루빈에서 치과의원 개설 만주 치과의학교 강사 1년재직 한국인 교육위원회 회장직을 6년 역임.

민간교육공로자 사할빈시장으로부터 공로상 받음.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월남 군의학교 입학 국방부 과학기술 연구소 의무실장으로 부터 시작하여

○위생 자료창 보급부장

○이동외과 치과과장

○정양병원 원장 보좌관 치과 부장으로 계시다 1955년 중령 으로 예편

원효로에서(금강치과의원)개설

서울시 치과의사회 의장으로 6년

고문으로 4년간 재직

대치대의원 20여년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未來에 對한 確固한 可能性을 信念으로 齒科界의 앞날을 위해 熱과 誠을 아끼지 않으신, 意志의 齒科人 金殷鍾 先生님! 善意와, 자비와 고운 行實로서 知行一致를 이루어 義로움을 生活의 유일한 便法으로 살아오신 金殷鍾 先生님이시다.

人間本然의 姿勢를 齒科醫師라는 慾望에 超然할 수 있는 대법을 純潔하게 두신 先生님의 患者診療 모습은 자못 世俗을 벗어난 聖者이시다.

1930年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韓國人은 17名뿐 第1回卒業을 起點으로 만주 「하루빈」에서 개업하여 15年間을 (1938~1945) 青春特有的 正열과 強直으로 항일운동에도 參與하신후 해방과 더불어 南下, 1949年 軍醫學校를 거쳐 齒科部長직에서 軍齒科醫療發展의 기록제가 되셨다.

서울시 齒科醫師會 代議員總會 議長職에서 고문

# 선화치과기공소

대표 李 禹 成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 - 10

☎ 23 - 1662

